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1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십시오.

마태복음 18 :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마태복음 18 :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마태복음 18 : 3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8 : 15 -17, 마가복음 10 : 13-16)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며, 올해는 꼭 이 계획을 이루어야지하며 다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보다 나은 삶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또 요사이와 같이 불경기인 시절에는 새해엔 경기가 풀려 어려움에서 해방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더 나은 삶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내일을 원하고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었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절대적 행복을 얻기 위해선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기에서의 해방과 환경의 지배입니다.

사람에게 이런 삶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이런 절대적 행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번 주에는 자기에서의 해방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I. 자신으로 부터 해방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18 :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마태복음 18 :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마태복음 18 : 3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8 : 15 -17, 마가복음 10 : 13-16)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까’ 물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 주제로 서로 토론하고 심하게 다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마가는 기록하기를,

마가복음 9 : 33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마가복음 9 : 34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큰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8 : 17 (마가복음 10 :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Luke 18:17 (KJV)

¹⁷ Verily I say unto you, Whosoever shall not receive (δέχομαι=accept) the kingdom of God as a little child shall in no wise enter therein.

마태복음 18 :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Matthew 18:4 (KJV)

⁴Whosoever therefore shall humble himself as this little child, the same is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이상의 구절들을 요약하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큰 사람을, 높은 사람을 행복한 자라고 본 반면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행복한 삶을 위해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현대적 해석을 하면 소유를 많이 가진자가 되면,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등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집사가 되면 큰 자가 된 것이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8 : 3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겸손(humility)과 청결(cleanness)과 단순(simplicity)입니다.

겸손(humility)과 청결(cleanness)과 단순(simplicity)성을 가진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의 어떤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아이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왕국 것으로 가득찬 너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고침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세상 것으로 가득찬 너희의 생각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라.

어린아이처럼 다시 태어 나라! 중생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

중생에 대한 공부는 구원론 제 2 과에서 자세히 공부를 했으므로 오늘은 중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아이로 태어 나면 어떻게 자신으로 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는가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바에 의하면 제자들의 마음 속은 세상 것으로 꽁 차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로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적 왕국을 누리길 원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잘못된 개념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 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부터 해방 되어 새사람으로 살 때 자기 자신으로 부터 해방과 자유를 줍니다.

자신에게서 해방될 때 큰 기쁨이 옵니다.

핀트가 빛나간 것 같은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을나는 들은적이 있습니다.

물질을 얻으려고 그 것에 집착할 때 물질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서 해방될 때 그것이 따른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얻으려고 집착할 때 그것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해방되면 거기에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 : 33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마가복음 10 :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마가복음 10 : 30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꺾박을 곁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기에게 집착 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기에서 해방될 때 오히려 성취가 따라 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에게서 해방되어 새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처럼 살 때 해방의 삶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옛사람에게서 해방될 때 거기에는 엄청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이 따라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뻐하라 감사해라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모두 옛사람에게서 해방된 후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옛사람에게서 해방된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살고 계시다. 자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기에게서 해방되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니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일어나, 서고 앉는 곳마다 함께 행하시어 기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19 : 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사도행전 19 :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것은 바울은 사도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일은 일어 납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바울 사도가 천막을 지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일하기 위해 쓰던 도구인데 그것을 병자위에 갖다 놓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서 해방되면 여러분들이 일하기 위해 쓰던 도구를 병든 자에게 갖다 놓으면 이런 기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주안에서 어린 아이처럼 살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 :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나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일이 일어난다!

저는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하던 일 다 걷어치우고 병고치러 다니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현재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말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생명으로 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부활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 새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하신 생명 즉 영생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과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4 : 22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에베소서 4 : 23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 :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길은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죽음에 던짐으로 가능합니다. 진리의 새사람을 살므로 가능합니다.

오늘 공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장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사면 초가의 절벽 앞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속에서 옛사람은 차츰 차츰 소멸되고, 하나님 만을 의지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많이 변하면 많이 변할수록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은 당신을 더욱 많이 나타내십니다.

새해에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성화의 큰 진보를 이루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